

‘오스카상’ 윤여정, 전세계 ‘러브콜’ 받을 듯



▲ 윤여정.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지난 25일, LA 유니온역 등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들어올린 윤여정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으로 영화 ‘미나리’ 관련

연기상 38관왕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윤여정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여정은 최근 촬영을 마친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애플TV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에서 주인공 선자 역을 맡아 세계 팬들을 만나간다.

‘파친코’는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가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세계적인 출연진이 함께 제작하고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 등 3개 국어로 제공된다. 4대에 걸친 한국인 이민 가족의 이야기를 8부작으로 담아냈다.

윤여정이 출연한 임상수 감독의 신작 ‘혜분: 행복의 나라로(가제)’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해 칸영화제 공식 선정작에 포함됐으며 우연히 만난 두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찾기 위한 특별한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윤여정은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LA총사영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어를 못해서 해외에서 러브콜이 들어올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전세계 영화의 중심지 미국에서 이미 주목을 받은 만큼 향후 그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수 제시 “미국서 6년간 왕따 당해”

가수 제시가 과거 6년 동안 따돌림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제시는 지난 25일 방송된 SBS ‘타키타카’에서 “예전에 미국에서 생활할 때 동양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6년 동안 왕따를 당했다.”면서 “그래서 싸웠더니 그 후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엄마한테 항상 팬찮다고 거짓말했다. 저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저를 썬 언니라고 하는데 저는 마인드가 썬 거다.”고 말했다.

제시는 1988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2003년 15살에 가수가 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한국행을 했다. 이후 2005년 12월 싱글 ‘Get Up’으로 데뷔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2014년에 래퍼 제이건과 보컬 제이요와 같이 힙합 그룹 럭키제이로 활동하며 뛰어난 가창력과 음색으로 주목받았다. 럭키제이가 2016년 해체되며 제시는 솔



▲ 제시. 사진=pnation

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다소 부정확한 한국어, 허스키하면서도 톤이 높은 목소리나 센언니 이미지 등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연예인으로 꼽힌다.

저스틴 비버, 욕일기 문양 패딩 논란



▲ 욕일기 패딩 입고 노래하는 비버. 사진=페이스북(서경덕의 대한민국 홍보 이야기)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욕일기 문양의 재킷을 입고 노래해 논란에 휩싸였다.

저스틴 비버는 지난달 9일 일본 TV 아사히 음악 프로그램인 ‘뮤직 스테이션’에서 신곡 ‘애니원’ (Anyone)을 부를 때 욕일기 문양을 연상하는 패딩을 입고 출연했다.

이에 ‘한국 알리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9일 팝스타 저스틴 비버에게 ‘욕일기=전범기’인 만큼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아울러 저스틴 비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소속사에 “욕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고 알려주면서 “욕일기의 정확한 역사적 의미를 알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는 2014년에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진을 올렸다가 큰 문제가 되자 사과한 바 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

